

톰 홀랜드 “스파이디의 성장...로다주 조언 받았죠”

〈스파이더맨의 애칭〉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친구로 머물지 영웅이 될지 갈등 공감 가는 히어로 캐릭터 매력적”

영화 ‘옥자’ 인연 제이크 질렌할 ‘봉준호 감독한테 맛집 추천 받아’

“이따금 ‘그’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어요.” 차세대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톰 홀랜드)이 언급한 ‘그’는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끝으로 마블 히어로 시리즈와 작별을 고한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이끈 ‘멘토’ 캐릭터다. 비록 영화 공동작업은 끝났지만 이들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2일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의 한국 개봉에 앞서 내한한 주연 톰 홀랜드는 1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언맨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조언이 필요했다”며 “친구와 놀고 싶은 청소년에 머물지, 영웅으로 성장할지 선택의 순간에 놓인 스파이더맨의 내적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영화는 마블 원조 캐릭터들이 떠난 뒤 일상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이 수학여행지 유럽에서 악의 세력과 마주하는 내용이다. 2017년 1편인 ‘스파이더맨:홈커밍’은 725만 관객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영화는 그 후속편이자, 4월 1391만 관객을 모은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연속선상에 놓인 작품이다. 마블 시리즈의 미래를 가늠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도 얻는다.



영화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의 톰 홀랜드(왼쪽)가 개봉 하루 전인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더맨은 완벽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더 공감을 얻는 매력적인 히어로”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주역 제이크 질렌할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톰 홀랜드는 “‘엔드게임’ 이후 마블 시리즈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테지만, ‘스파이더맨’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나도 궁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내 스파이더맨의 강점을 짚었다. “아이언맨은 역만장자, 토르는 신, 캡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슈퍼히어로”라고 말한 그는 “반면 스파이더맨은 완벽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아서 현실적으로 더 공감을 얻는 매력적인 히어로”라고 강조했다.

마블스튜디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주역 톰 홀랜드를 통해 10대 관객에게 동시대의 고민과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주요 테마는 ‘스파이더맨의 성장’이다. 톰 홀랜드도 전 세계 10대 관객과 소통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누구나 매력과 특별함을 갖고 있으니 그걸 마음껏 표출하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에는 또 다른 주역 제이크 질렌할도 함께 했다. “상상력을 펼치고 싶다 생각할 무렵 제안을 받아 흔쾌히 응했다”는 그는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로 통한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도 출연한 그는 서울에 오기 전 봉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맛집”을 추천받았으며 한국이 안긴 감성에 주목했다. 그는 “‘옥자’를 통해 한국의 재능 넘치는 스태프와 작업했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며 “나 뿐 아니라 한국에 오는 많은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문화적인 영감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해라 기자 golf1024@donga.com

송중기·송혜교 파경 후폭풍...인터넷 ‘지라시’ 주의보

확인 안 된 루머·역측 담긴 글 난무 ‘송중기 탈모 사진’까지 검색어 장악

연기자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번에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 게시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경 사유를 둘러싸고 무차별 유포된 ‘지라시’에 이은 또 다른 피해로 우려를 자아낸다.

1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역측이 담긴 게시물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는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을 ‘정리한 글’이 게시 직후 삭제됐다. 원본은 바로 사라졌지만, 이미

글을 본 누리꾼들이 또 다른 사이트로 이를 퍼 날랐다. 일부 누리꾼은 삭제 조치를 피하려는 듯 비슷한 내용을 제목만 바꿔 SNS에서 재생산하고 있다. 유튜브, 판도라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해당 내용을 마치 방송 뉴스 보도인 것처럼 편집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져가고 있다. 급기야 ‘송중기 탈모 사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문제의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송중기는 예정대로 3일 대전에서 국내 최초 우주 배경의 SF영화 ‘승리호’의 촬영을 시작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김태리·진선규와 함께 출연진 및 조성혁 감독 등 제작진과 영화의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어 7일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2를 마무리하고 9월 파트3으로 돌아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꿈 이용한 돈벌이 그만”...시민들이 나섰다

아역 캐스팅의 이면 ①

인권단체들 제도 개선 등 적극 대처 한연노도 미성년 조합원 보호 노력

아역 연기자 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일부 기획사들의 사기 행각은 방송가의 ‘고질병’으로 취급돼 왔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근본적인 근절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해왔다. 이에 인권단체와 연기자노조 등이 대처에 나서고 있다.

아역 연기자 지망생 K양(14)의 어머니

는 작년 가을 드라마 오디션에 연결해준 웹드라마 감독으로부터 자녀의 연기 교육비를 사기 당했다.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연기를 향한 딸의 열정이 대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번번이 사기를 당하자 아이가 ‘나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했다”고 털어놨다.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호소한 K양은 결국 최근 연기를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출연자노동조합은 이 같은 피해 사례만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윤환 사무국장은 “전속계약을 발미로 한 금전 요구, 허위 PPL(간접광고) 비용 청구, 제작사 접대비 등까지 다양하다”며

서 “피해 금액만 어렵잖아 수익 원대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기획사는 버젓이 활동 중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로 앉히고 사업자등록증만 바꾸면 탈미를 잡힐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적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힘들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텔런트와 성우 등 방송연기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지만, 아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송창곤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청 접수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도 해당 사건을 맡을 부서조차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관련된 고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연노도 “작년부터 미성년 연기자들을 조합원으로 받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부모들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되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큰 덕분이다. 배윤환 사무국장은 “아이가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며 사태를 외면했던 부모들도 관련 보도가 이어진 후 피해 사례 제보에 동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는 부모가 많아질수록 인식과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마약 혐의’ 박유천 형량은? 오늘 선고 결과 촉각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3)에 대한 2일 선고 공판에서 나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

소된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일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



박유천

성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 지난해 9~10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달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면회를 때마다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저를 믿어준 분들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연기자 김수현이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1사단 수색대대에서 전역한 뒤 임진각 평화의 종에서 300여 팬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는 “내년 작품을 통해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

김수현 전역 소감 “실감 안 납니다”

연기자 김수현이 1일 제대했다. 김수현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1사단 수색대대에서 전역했다. 직후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300여 팬들을 만났다. 그는 “실감이 안 난다. 여느 용사들처럼 군 생활을 열심히 했다. 특급전사 타이틀을 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심장질환으로 징병검사에서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 의지로 재검을 받아 1급 판정으로 2017년 10월 입대했다. 한편 이날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대했다. 디오는 입대에 맞춰 솔로곡 ‘괜찮아도 괜찮아(That’s okay)’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디오는 2021년 1월 제대할 예정이다.

YG 관련 의혹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

민감동 경찰청장이 비아이 마약 등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1일 “모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요건이 된다면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현석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밝혀지면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현석은 2014년 7월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다음달 만료된다.

안성기·김태리, 내레이션 재능 기부



안성기 김태리

배우 안성기와 김태리가 한국 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영상에 목소리를

보냈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1919년 ‘의리적구토’ 이후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공식 트레일러를 제작한 가운데 두 사람이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김종관 감독이 연출한 영상은 1919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을 맞은 한국영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꾸며졌다.